『영주어문』 제33집(2016. 6.) 23-43쪽

제주도 지명의 일연구

- 중세몽골어와의 개연성(蓋然性)을 중심으로 -

임 도 희*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제주지명과 몽골어
2.1. 가시오름
2.2. 더데오름
2.3. 멜케
2.4. 모록밭
2.5. 무수내
2.6. 바리오름
2.7. 버렝이
2.8. 아진오름
2.9. 알오름
2.10. 웃드르
3. 맺음말

<국문초록>

역사적 인간관계나 상호교류 가운데 언어와 문화는 전달되고 변화하여 존재해 왔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의 가장 큰 섬인 제주도와 몽골과의 역사적 사실로 인한 언어의 잔재를 연구하는 것은 양국 간의 언어학적인 면에서 연구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논자는 제주 지명에 관한 여러 논리들을 고찰하였다. 제주지명은 지역의 특징적인 고유 의미가 담긴 어휘들이 많으며, 언어의

* 몽골 후레정보통신대학교 기술한국어통역학과 교수.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언어학 박사과정 중.

유입 또한 외세의 침략과 교류로 인해 지역화되고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오름명(가시, 더데, 바리, 아진, 알)과 제주내 지명(멜케, 모록밭, 무수내, 버렝이, 웃드르)등의 어휘를 중세몽골어와 관련하여 형태, 음운, 의미적으로 고찰하여 제주만의 고유 지명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개연성 연구는 언어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한자음표기에 따른 의미이해와 어원의 변형, 지역과 지형의 특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제주어와 중세몽골어와의 여러 상관관계에 있어 좀 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 학술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학적 개연성 연구는 양국 언어학자들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연구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이다.

● 핵심어: 가시오름, 더데오름, 멜케, 모록밭, 무수내, 바리오름, 버렝이, 아진오름, 알오름, 웃드르

1. 들어가는 말

역사적 근거로 볼 때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으로서의 제주도는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언어의 유입이 타 지역의 방언과는 다른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원종 14년(1273)부터 제주도는 몽골군의 입도를 시작으로 징기스칸 왕족을 포함한 몽골 유배인, 관원, 수행원, 목수 등 많은 몽골인들이 출입하며 정착하였고 다스렸다. 恭愍王 23년(1374)까지 제주도는 약 1백년 동안 직・간접으로 몽골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특히 언어적 측면에서 중세 원(元)과의 역사적 교류관계로 인해 들어온 언어는 자연스럽게 차용관계로 형성되었다고 본다. 석주명(1947)은 외래에서 영향을 받은 제주어 가운데 특히 몽골어에서 유래한 어휘는 그의 저서『제주도 방언집』에 240여개가 관련된다고 하였다. 그 후 김기선(1993)은 몽골어와 관련하여 박용후(1988)의『濟州方言硏究(資料篇)』를 자료로 몽골국립대에서 “한국 제주어내 몽골에서 유래된 어휘와 원(元)과 고려의 역사적 관계”라는 제목으로 연구하였다. 그 중 논자는 제주도 지명과 관

련한 연구 가운데 몇 어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논하는 지명은 제주어의 몽골어 개연성과 관련되어 김기선 연구 외에 현재까지 연구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본문에 제시한 어휘들을 고찰함으로써 제주도만의 고유 어휘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도 차용언어 연구에 있어서 문제성이 있을 고유 제주어에 대한 분명한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학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물론 이러한 학적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진다면 양국간의 언어적 연구를 통한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지명 중 몽골어와의 차용관계로 언어학자들의 학설이 분분한 '황파두리, 산굼부리, 한라산, 오름' 등의 어휘들을 볼 때, 본 연구는 20여 년 전의 몽골내 지명연구를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명의 한자표기, 현지자료를 통한 외관이나 지역의 특징 등으로 칭하는 일반적 근거에 의해 중세몽골어의 음운과 의미를 중점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한다. 본 연구는 이기문(1986)의 『국어학신연구 Ⅲ-차용어 연구의 방법』에서 제시한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어휘론적' 기준에 의한다.

본문의 제주어표기는 개정증보 제주어사전(2009)을 기초 자료로 하였으며, 본문에서 사용한 몽골어 표기 순서는 현대몽골어, 갈릭(문자) 순이다. 갈릭(문자) 표기는 『몽골어 요약 해설사전』(Я.Цэвэл체웰; 2013), 발음은 『몽골어 발음사전』(2014)을 참고하였고 몽골 어휘 해설을 각주 처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2. 제주지명과 몽골어

2.1. 가시오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 '가시-오름=가시-악, 가스름', 표선면 가시리의 옛 이름은 '가시-오름=가스름'이며, 가시리에 있는 오름은 '가시

-오름=가세-오름'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에 '가시남-오름=가시낭-오름(日果岳・日課岳)'이 있다. 석주명(1947)은 몽골식 지명으로 '가시낭봉오지'라 표기하였다. 김기선(1993)[1]은 '가시낭봉'과 몽골어 'гашуун[ğaʃu:n]'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몽골지명에 쓴 호수, 쓴 고비사막이 있다. 이것은 '쓴, 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이다. 그러면 제주의 가시낭봉 오름이라는 어휘는 아마 쓴 봉산이라는 어휘에서 근원이 되었다"고 하며 'gasi nan'은 몽골어 'гашуун[ğaʃu:n]'의 한국식 발음으로 보았다. 오름의 형상에 맛을 표현하는 어휘인 '쓰다'와의 개연성은 의미적으로 관련짓기 어렵다. 오창명(1996)[2]에서는

> 동일리 '세미'마을과 '흥물'마을 사이에 있는 '가시오롬'은 옛날에 '날외오롬', '가시오롬', '밤남오롬'이라고도 했으나, 최근에는 '가시오롬'으로 많이 알려졌다. …加是岳[가시오롬]>加時岳은 '가시오롬'의 표기이다. 加是와 加時는 '가시'의 음가자 표기이고, 岳은 훈독자 표기이다. '가시나무가 많은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이때의 가시나무는 '물참나무'를 말한다.

고 하였다. 제주어사전에서는 '가시낭봉'이라는 오름이 없고,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가시오름'은 가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위의 오창명의 '가시오롬'의 설명처럼 여기서도 '가시낭봉'은 '가시가 난 봉우리, 가시나무가 많은 오름'을 말하는 것이다. 제주 민요[3]에서 '낭'은 제주어로 '나무'를 뜻하기 때문에 '가시낭'은 '가시나무'이며 '峰'은 '봉우리'를 의미한다. 草木名과 관련하여 심여택(1975)[4]도 '나무'를 제주방언으로 '낭'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5]가 있다. 제주어의

---

1) Ким ки сон,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ь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 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Курё улсын түүхий н холбогдол」, 몽골국립대학교(박사논문), 1993, 215~216쪽.
2) 오창명, 「濟州道 마을[洞里]과 山岳 이름의 종합적 연구」, 『탐라문화』 제1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88쪽.
3) 김광협,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태광문화사, 1984, 41쪽(감낭=감나무 103쪽).
4) 심여택, 「濟州道 地名의 構成:中文面의 地名을 中心으로」, 국내학술기사,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1975, 60~61쪽.
5) 문순덕, 「제주 구비문학에 나타난 제주방언의 문법 연구」, 『영주어문』 제21집,

많은 지명에는 지역의 특징을 따라 붙여진 이름이 많은데, 예를 들면 가시남-밧(가시가 나거나 있는 밭), 갓쟁이-밧(갓장이의 소유였던 밭), 큰-드레(큰 들판, 넓은 들), 족은-드레(작은 들판, 좁은 들)등 생활언어에서 발음 나는 대로 지명의 이름들을 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시오름'은 맛 표현 어휘인 '쓴, 쓰다'의 몽골어 'гашуун(ɣasi ɣun)'[6]과 개연성이 없고, 제주어로 '가시나무 봉우리, 가시나무가 많은 오름' 즉 '가시나무 오름'을 뜻하는 것이다.

2.2. 더데오름

서귀포시 상예동 더데오름동네(加加岳洞)에 있는 작은 오름이다. 김기선(1993)[7]은 몽골어 'доод[do:d]'라는 어휘와 더데오름을 연관 짓고 있다. "몽골 지명에 'доод нуур, доо-үдэ'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이 있다. 이것은 일부 낮은 곳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주의 더데오름은 낮은 산, 아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하였다. '더데오름'을 오창명(1996)[8]은

> 加加岳[더더오롬], 加岱岳[더데오롬]으로 상예동 '가가악동'에 있는 '더더오롬>더데오롬'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加加岳, 『원대정군지』 등에 加加岳, 加岱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현지인들은 '더데오름・더디오름・더더오롬'이라고 한다. 加는 '더(加 더ㅎ 가≦<유합-송광사본>)'의 훈가자 표기 또는 '데'의 불완전한 훈가자 표기, 岱는 '대/데'의 음가자 표기이다. 岳은 '오

영주어문학회, 2011, 187쪽(제주시를 기준으로 하여 서부지역에서는 '낭'을, 동부지역에서는 '남'을 사용한다).

6) Цэвэл.Я,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 лбар толь(몽골어 요약 해설사전)』, Мөнхий н үсэг ххк, 2013, 198쪽(1. 쓴 맛-맛이 쓴 물, 술; 2. 슬픔, 비애-비꼬는 말이나 나쁜 말로도 사용).

7) Ким ки сон,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ь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 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Курё улсын түүхий н холбогдол」, 몽골국립대학교(박사논문), 1993, 206쪽

8) 오창명, 「濟州道 마을[洞里]과 山岳 이름의 종합적 연구」, 『탐라문화』 제1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30쪽.

> 롬'의 훈독자 표기이다. 加加岳은 '더더오롬·더데오롬'의 표기, 加岱岳은 '더데오롬·더디오롬'의 표기이다. '더더' 또는 '더데'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오름 주변에 여러 언덕들이 겹겹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하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고 하였다. 하지만 몽골어 'дood(중세몽골어 dooradu)'와는 형태적으로나 음운적으로 차이가 있고, 더데오름 주변에 언덕이 겹겹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덧-대다[9]'와 음운상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해진 옷이나 천위에 헝겊을 덧대어 다시 사용할 때를 이르는 '덧대다'는 포개거나 겹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창명(1996)의 한자표기로도 설명이 된다. 제주어사전(2009; 239)에서도 더데오름 주변에 언덕이 겹겹이 이어져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름 주변에 작은 언덕이 겹겹이 있는 형상으로 보아 한국어 '덧-대다'와 개연성이 있으며 아래쪽의, 밑의 의미가 있는 몽골어 'дood(dooradu)'[10]와는 관련이 없다.

2.3. 멜케

박용후(1988; 210)는 멜-캐[Melkae]로 기록하고 대정읍에 있는 지명이며 약포동(鰯浦洞)이라 하였는데, 한자를 풀이하면 멸치해안가로 멸치가 많이 나는 포구를 의미한다. 김기선(1993)[11]은

> 제주 지명 중에 Мэлкэ /melke/ 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이 있다. 몽골 옛 문헌에 melekei 라 쓰여 있다. 몽골 왕의 시체 위에 예부터 돌개구리를 놓

---

9) 민중서림 편집국, 『엣센스 국어사전』 제5판, 민중서림, 2003, 596쪽(댄 위에 다시 겹쳐 대다).

10) Цэвэл.Я,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 лбар толь(몽골어 요약 해설사전)』, Мөнхийн үсэг ххк, 2013, 280쪽(1. 위의 반대말; 2.물건의 밑 부분; 3. 귀하지 않은; 4. 상하계층의 순서 중 아래; 5. 다음에, 아래에, 후에).

11) Ким ки сон,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ь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 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Курё улсын түүхийн холбогдол」, 몽골국립대학교(박사논문), 1993, 208쪽.

고, 비석을 세웠다. 특히 6-7세기 때 몽골에 거주했던 터키왕의 무덤에 개구리를 사용하였었다. 몽골 아르항가이 아이막의 돌개구리 위에 세운 비석이 적지 않았다. 제주 지명에서 멜케는 개구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바닷가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고 하였다. 여기서 몽골어 мэлхий (melekei)[melxi:]와는 의미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제주어에서 '멜'은 멸치를 뜻한다. '케'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지경(地境)으로 장소를 의미하거나 지역의 공동 농경지를 뜻한다. 둘째 문덕찬(2005)[12]에서 '어떤 풀이나 나무가 자라고 있는 초원 지대의 들'을 뜻하는 제주도 특유의 후부요소[13]이다. 박용후(1988)의 '-캐'는 윷놀이에서 '개'를 의미하는데, 아마 지명표기로 보아 '-케'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볼 때, '멜-'과 지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전자의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므로 위의 개구리를 의미하는 몽골어 мэлхий (melekei)[melxi:][14]와는 관련이 없으며, 멸치가 많이 잡히거나 많이 있는 바닷가의 포구를 이르는 제주어이다.

2.4. 모록밭

박용후(1988; 210)에서 안덕면 상천리(上川里)에 있는 지명이다. 석주명(1947; 40)은 제주지명 중 '모룩밧'이 있다고 했지만, 몽골어와는 관련하고 있지 않았다. 몽골에는 강의 규모에 따라 мөрөн[mörön](큰 강)→гол[ǧol]→горхи[ǧôroxĭ](냇물, 시내) 등의 어휘가 있다. 김기선(1993)[15]은

12) 문덕찬, 「제주 지명어의 형태・음운론적 연구」, 제주대학교(박사논문), 2005, 23쪽.
13) 위의 책, 재인용, 박용후, 『우리말 옛 땅이름 연구』, 제주문화사, 1992, 128쪽.
14) Цэвэл.Я,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 лбар толь(몽골어 요약 해설사전)』, Мөнхий н үсэг ххк, 2013, 497쪽(1. 개구리; 2. 큰 대문에 붙은 작은 문; 3. 가축의 복사뼈로 거북이를 만드는 놀이).
15) Ким ки сон,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ь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 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Курё улсын түүхий н холбогдол」, 몽골국립대학교(박사논문), 1993, 207쪽.

> 옛 문헌에 mören 이라는 어휘가 있다. 또한 Мөрөн 이라는 지명이 있다. 몽골어에 물이 많은 큰 강을 mören 이라 불렀는데…이 문헌에 따르면 제주어의 모록밭은 몽골문자의 mören 이라는 어휘와 관련짓는 것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 몽골어의 mören의 발음이 한국화 되어 모록과 연결되었다.

고 하였다. 제주지역은 화산섬으로 중앙에 솟은 한라산 주변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계곡, 하천, 폭포가 흐르는 정도이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오면 솟는 '…물'이나 연못의 형태인 '…못'과 물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 곳인 '…샘' 등이 물과 관련 되는 제주어휘이다. 몽골어 'Мөрөн(mören)[mörön]'은 넓고 큰 강이나 물이 많은 강을 의미하며, 좁은 강은 'гол(roул)[ğol]'이다. 그러므로 '모록'은 큰 강을 의미하는 몽골어 Мөрөн(mören)[16]과는 관련이 없다. 제주어에 '모록-모록, 모록이'라는 어휘는 첫째 그릇에 밥 따위를 넘칠 만큼 담아 놓은 모양, 둘째 몸이 포동포동하게 살찐 모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모록'은 땅이 주변지역에 비해 좀 더 높이 올라와 있거나 돋우어진 모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록-밭'은 주변지역에 비해 조금 위로 올라와 있는 지대가 높은 밭을 의미한다.

2.5. 무수내

제주시 해안동에서 외도동으로 흐르는 내(川)와 해안동의 자연마을의 지명이다. 박용후(1988; 206)는 무스-내(無數川)로 표기하였다. 김기선(1993)[17]은

> 제주어에 무스내라는 어휘가 있다. 이 어휘는 몽골어 мөс /mös/ мөрөн /mören/ 어휘와 관계있다. …몽골어의 мөс는 물이 언 것을 이르는 어휘 м

---

16) Цэвэл.Я,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 лбар толь(몽골어 요약 해설사전)』, Мөнхийн үсэг ххк, 2013, 485쪽(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큰 강).

17) Ким ки сон,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ь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 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Курё улсын түүхийн холбогдол」, 몽골국립대학교(박사논문), 1993, 201쪽.

> өрөн은 물이 많은 강을 이르는 것으로 мө /mö/ 어간은 물을 의미하는 어휘가 된다. 이러므로 제주의 무스내는 고대 몽골어 mösü(n) 어휘와 관계되며 뿐만 아니라 이 어휘는 한국어로 부를 때 냇물(시내)의 의미를 가진 - 내를 첨가하여 불렀다. 그래서 몽골어의 mösü 라는 어휘는 오래 전에 흐르는 물을 의미하였고 한국어에 들어와 사용되고 있다.

고 하였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몽골어에 얼음을 의미하는 мөс(mös)[mösə][18]가 많지 않고 мөрөн(mören)처럼 큰 강이 없으므로 순수 제주어라 볼 수 있다. 한자풀이로 셀 수 없을 만큼 물이 많다면 몽골어 мөрөн(mören)과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제주어로 '무수'는 'ㄴ삐'라고도 하는데 무(무우)의 뿌리만을 일컫는 말이다. 제주지명에서 '무쉐내'로 불리기도 하는 내(川)와 자연마을의 지역 이름 중 여기서는 내(川)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해안동과 도평동을 흘러 외도동으로 흐르는 내(川)로써 무의 뿌리가 가늘고 길기 때문에 내(川)의 모양이 무의 뿌리와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본다.

2.6. 바리오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있는 오름명으로 '바리메, 바리오름, 발-산(鉢山)'이라고도 한다. 석주명(1947)의 『제주도방언집』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박용후(1988; 212)[19]에는 애월읍에 '바라메(發伊岳), 바래오름, 바리오름' 지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기선(1993)[20]은

> 몽골 옛 문헌에 bara와 сүр бараа(장엄한 모습)라는 어휘는 크다, 외형

---

18) Цэвэл.Я,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лбар толь(몽골어 요약 해설사전)』, Мөнхийн үсэг ххк, 2013, 485쪽(1. 얼음-얼은 물, 얼음 같은; 2. 활의 깃털 부분이나 막대부분; 3. 성품, 본바탕, 양심).

19) 박용후, 『濟州方言硏究(資料篇)』, 高大民族文化硏究所 出版部, 1988, 212쪽.

20) Ким ки сон,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ь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 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Курё улсын түүхийн холбогдол」, 몽골국립대학교(박사논문), 1993, 215쪽.

(형태)이 크다는 의미가 있다. 연구자료에 근거하면 피너어의 para(s), 모롭어의 pară, 마리어의 poro, 오드모르트어의 bur, 커미어의 bur, 몽골어의 bara, 퉁구스어의 bara(n), 만주어의 baran, 어럭어의 bara/176/[21]는 장엄한 모습, 외형이 큰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보면 제주어의 '바라' 몽골어의 'bara' 두 어휘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며 이 연구조사를 토대로 '바라오름'의 '바라'는 몽골어와 관계있다고 보았다. 중세와 현대몽골어에 'барааа(bar-a)[bara:]'라는 어휘는 현재까지 같은 형태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바라오름'의 '바라'는 몽골어의 음운과 형태가 일치하므로 중세몽골어와의 개연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바리메' 나 '바리오름'의 명칭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발산(鉢山)으로 '바리'는 첫째 묶음이나 단을 나타내는 수량 단위나 마소 한 마리에 실어 나를 만한 무게의 분량, 둘째 마소의 수효를 세는 단위, 셋째 놋쇠로 만든 여자의 밥그릇이다. 여기서 한자 '발(鉢)'은 절에서 사용하는 그릇이다. '바리메'(2009; 417)는 바리, 즉 놋쇠그릇을 엎어 놓은 형태이므로 여기서의 '바리'는 몽골어 барааа(bar-a)와는 개연성이 없다. 바라오름과 바리오름이 같은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오름을 두 가지로 명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것이 옛 지명으로 정확한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어의 특징 중 하나는 중세국어의 단모음 형태인 '·'이다. 박용후(1992)[22]는 훈민정음의 홀소리에서 첫째소리이며 홀소리의 근본이 되는 소리로, 표준말에서는 'ㅡ, ㅜ, ㅣ' 외에도 'ㅏ, ㅓ, ㅗ, ㅜ' 등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태적으로나 음운적으로 '·'을 적용하면 '바리(바라)오름, 바리(바라)메'는 몽골어'барааа[bara:]'[23]와 관련이 없고 제

---

21) Ким ки сон,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ь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 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Курё улсын түүхий н холбогдол」, 몽골국립대학교(박사논문), 1993, 재인용. Сравнителъный словаръ тунгусо-манъчжурских языков ботъ-2 Л-1977.

22) 박용후, 「제주도 고대사와 언어」, 『제주도사연구』 제2집, 제주도사연구회, 1992, 246쪽.

23) Цэвэл.Я,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 лбар толь(몽골어 요약 해설사전)』,

주어 '바리'를 의미한다.

2.7. 버렝이

박용후(1988; 211)[24]에는 한림읍 금릉리(今陵里)에 있는 지명이다. 김기선(1993)[25]은

> 몽골 옛 문헌에 buren, burikü, bürihyesu 어휘가 있다. 이들 어휘의 어근 bur는 덮다, 만들다, 모두 있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나이어의 buri는 /82/[26] 덮다, 만들다, 모두 있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보면 제주어 지명에 있는 버렝이는 몽골어의 бүрэн(bürin)전부, бүрэх(büri-)덮다의 의미와 관계된다고 본다. 몽골지명에 Бүрэн уул(부렝산), Бүрэн сум(부렝군(읍))이 있다.

고 하였다. 하지만 제주방언으로 버렝이는 구더기나 벌레를 의미하는데, 고어로는 '벌에'이며 석주명(1947; 47)은 '베렝이'라고도 하였다. 몽골어로 хорхой [xorxoi](벌레, 곤충, 탐욕), өт[ötõ](구더기, 유충)이라는 어휘이다. 그러므로 몽골어 бүрэн(bürin)[büřn][27](전부, 완전한), бүрэх(büri-)[28](덮다, 씌우다, 발효하게 하다)와는 음운적으로 비슷하지만, 버렝이와는 관련이 없고 한국어 '벌레'가 제주도에 들어가 제주화된 어휘로 볼 수 있다.

Мөнхий н үсэг ххк, 2013, 91쪽(1. 상태, 외형, 멀리서 보이는 모습-부피가 큰 짐, 장엄한 모습; 2. 수행하다).

24) 박용후,『濟州方言硏究(資料篇)』, 高大民族文化硏究所 出版部, 1988, 211쪽.

25) Ким ки сон,「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ь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 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Курё улсын түүхий н холбогдол」, 몽골국립대학교(박사논문), 1993, 213쪽

26) 위의 책, 재인용. Нанай 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ъ. М-1980.

27) Цэвэл.Я,『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 лбар толь(몽골어 요약 해설사전)』, Мөнхий н үсэг ххк, 2013, 161쪽(1. 모두, 전부, 전적; 2. 완전한, 원형의).

28) Цэвэл.Я,『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 лбар толь(몽골어 요약 해설사전)』, Мөнхий н үсэг ххк, 2013, 161쪽(1. 덮다, 씌우다, 도금하다; 2. 발효시키다).

2.8. 아진오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동북쪽에 있는 오름으로 '안진오름, 안친오름, 坐置岳'이라고도 한다. 김기선(1993)[29]은

> 몽골 지명에 Аж богд 라는 산이 있다. 투렉어 내에서 하카스·알타이어의 -ажу, 토와어의 -ажыг, 카작어의 асу, 토르크맨어의 ажу, 키르기즈어의 - ашуу /60-61/[30]는 작은 산(언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주어의 아진오름은 어려운 고비, 고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오래 전 몽골어 Аж라는 어휘와 관련된 것이 분명하다.

고 하였다. 'аж[adʒĭ]'는 중세나 현대몽골어에서 모두 같은 의미로 '삶, 생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작은 산(언덕)을 의미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어려운 고비(고개)를 뜻하는 것으로 제주민의 삶과 생활 속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몽골어 'аж(ağu)'의 의미로 짐작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제주의 지역 방언으로 '아진'은 '앉은(坐)'의 뜻이다. '안진, 안친'은 '앉아 있는'과 뜻과 음운이 같으며, '坐置'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세국어에서 '앗-'과 '앉-'이 공존했는데, 제주어 표기[31]에 '앉다'는 '앉다, 안지다, 아지다, 앗다'등으로 표기하며 '앗-'과 관형형어미 '-은'이 결합한 '아즌'에서 고모음화에 의해 '아진'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민요시집[32]에도 '곱앙 아진'은 '숨어서 앉아 있는'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진오름의 '아진'은 '앉은, 앉아 있는'의 제주어이며 낮은 오름이나 작은 오름을 지칭하므로 몽골어 'аж

---

29) Ким ки сон,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ь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 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Курё улсын түүхий н холбогдол」, 몽골국립대학교(박사논문), 1993, 204쪽

30) 위의 책, 재인용 О.Т.Молчанова Топоним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горного-Алтая Борно-Алтай ск 1979.

31) 강영봉, 「'제주어 표기법'에 대하여」, 『영주어문』 제15집, 영주어문학회, 2010, 23쪽.

32) 김광협,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태광문화사, 1984, 63쪽.

(aǰu)[adʒǐ]'[33]와는 관련이 없다.

2.9. 알오름

제주도내에 7개[34]가 있는데, 대부분 지대가 높지 않고 큰 오름들 사이에 끼어 있거나 크기가 작은 오름명으로 한자표기는 卵岳이다. 그 중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오름의 분화구 안에 새로 솟아 난 작은 오름도 있다. 박용후(1988; 208)에도 표선면의 '알-오름'은 卵岳이다. '알(al)'을 튀르크어와 관련지은 람스테트((1985; 239)[35]는 "튀르크어 후치사 altynda '그의 아래에', '그의 아래로', altymda '나의 아래에', altyⁿa '어떤 것의 아래로' 중의 al (cf. 한국어 arä(al의 처소격임. SKE, 6면) '아래에', '아래로', čib-al '집의 기초')"라 하였다. 김기선(1993)[36]은

> 몽골비사 238쪽에 칭기스왕(ал дээл)에 대해 쓰여 있다. 고대 몽골어에서는 ал /al/은 붉은(빨간)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몽골어에 ал улаан (새빨간)이라는 복합어가 있다. 여기에서 제주어의 알오름은 붉은 산을 의미한다. 몽골의 헙스골 지역에 Уул уул이라는 지명이 있다. 다른 쪽으로 투렉어에 알은 '높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어의 알오름은 이전의 aba, al의 어휘와 관계있기 때문에 높은 산, 붉은 산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제주어사전에는 '알'처럼 자그마하다는 뜻(1996; 67), 알(卵)과 같이 둥글다는 뜻(1996; 333), 새알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

---

33) Цэвэл.Я,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 лбар толь(몽골어 요약 해설사전)』, Мөнхий н үсэг ххк, 2013, 18쪽(1. a-동사가 탈락된 어간; 2. 삶, 생활, 산업, 상공업; 3. -이다).

34) 제주문화예술재단, 『개정증보 제주어 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592쪽.

35) G.J 람스테트, 『알타이어형태론개설』, 민음사, 1985, 239쪽.

36) Ким ки сон,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ь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 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Курё улсын түүхий н холбогдол」, 몽골국립대학교(박사논문), 1993, 204~205쪽.

(1996; 335)[37]등으로 '작거나 둥글다'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중세몽골어와 관련하여 'al'이 '붉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제주도내에 있는 7개(2009; 592)의 '알오름'이 높거나 붉은 색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자표기의 '작거나 둥글다'의 의미가 있는 '알(卵)'과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제주어에서 '알'은 '아래, 낮은(위치)'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알칭(아래층), 알ㅌ(아래턱), 알동네(아래쪽에 있는 동네) 등이 있다. 현평효・강영봉(2014)[38]에서도 '아래'는 '아레, 알'로 '아랫길'은 '알질'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알오름'의 '알'은 몽골어 ал улаан(al ulaγan)의 ал[al][39]과는 개연성이 없고 '작은 오름, 아래쪽에 있는 오름, 저지대에 있는 오름'을 의미한다.

2.10. 웃드르

제주어사전(2009; 695)에서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僻地) 근처의 들,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 근처의 들이나 마을로 윗마을・윗동네를 지칭하는 것이다. 석주명(1947)에 '우알'[40]은 '우아래(上下)'를 의미하며, '웃뜨르'는 上野(1947; 175)로 표기하였다. 박용후(1988; 14)도 산간지대를 지칭하였다. 김기선(1993)[41]은 "제주어의 '웃드르'는 높은 지대를 의미한다. 몽골어의 өндөр(높은)에서 н－д 음으로 변화하여 өндөр라는 형태로 제주어에 남게 되었다고 본다. 이 두 어휘를 비교해 보면 첫째 발음이 비슷하다. 둘째 의미가 같다"고 하였다. 한국어로 산간지대를 지칭하는 어휘

---

37) 제주문화원, 『濟州市 옛 地名』, 제주시, 1996, 67; 333; 335쪽.

38) 현평효・강영봉 편저,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 도서출판 각, 2014, 232쪽.

39) Цэвэл.Я,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лбар толь(몽골어 요약 해설사전)』, Мөнхийн үсэг ххк, 2013, 24쪽(1. 아주, 매우-새빨간; 2. 샅, 사타구니; 3. (동)기러기).

40) 석주명,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1947, 71쪽.

41) Ким ки сон,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ь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 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Курё улсын түүхийн холбогдол」, 몽골국립대학교(박사논문), 1993, 95쪽.

이며, 몽골어 өндөр[öndör]와는 어두의 발음이 일치하고 의미도 같기 때문에 몽골어와의 개연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어에서 '드르'는 한국어의 '들'을 뜻한다. 여기서 접두사 '웃'은 위나 높은 곳을 나타내는 방언이므로 '웃드르'는 '위쪽에 있는 지대, 높은 곳에 있는 들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김기선(1993)의 몽골어 өндөр(öndür)[öndör][42]와는 발음이나 의미가 비슷하지만 몽골어와는 개연성이 없으며, '웃'은 위, '드르'는 들판을 지칭하는 제주방언이다. 위 어휘와 연계하여 제주어에 '알-드르'는 '아래쪽에 있는 드르(들)라는 뜻에서, 해변 또는 해안가 가까이에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이 있다. 여기서 '알'은 '아래'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3. 맺음말

지금까지 중세몽골어와의 개연성 연구에서 오름명 중 가시(몽골어 гашуун(중세몽골어 γasiγun)-쓴, 쓰다(맛 표현어휘))는 가시나무, 더데(доод(dooradu)-아래, 밑)는 한국어 '덧-대다', 바리(бараа(bar-a)[bara:]-상태, 외형)는 놋쇠그릇을 엎어 놓은 형태의 '바리', 아진(аж(aǰu)[adʒĭ]-삶, 생활)은 앉은(坐)의 의미로 낮거나 작은 형태, 알(ал улаан(al ulaγan)-새빨간, ал[al]-아주, 매우)은 '작은, 아래쪽에 있는, 저지대'를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주내 지명 중 멜케(мэлхий (melekei)[melxi:]-개구리)는 멸치가 많이 잡히거나 많이 있는 바닷가의 포구, 모록밭(мөрөн(mören)[mörön]-큰 강, 넓은 강)은 주변지역에 비해 조금 위로 올라와 있는 지대의 밭, 무수내(мөс(mös)[mösə]-얼음)는 무의 뿌리가 가늘고 길기 때문에 내(川)의 모양이 무의 뿌리와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 버렝이(бүрэн(bürin)[bürĭn]-전부, 완전한, бүрэх(büri-)-덮다, 씌우다, 발효하게 하다)는 한국어 '벌

42) Цэвэл.Я,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 лбар толь(몽골어 요약 해설사전)』, Мөнхийн үсэг ххк, 2013, 609쪽(1. 높은, 많은; 2. 아주 큰-나이를 많이 먹다, 윤년; 3. 위, 귀한-종족의 시조; 4. 큰 소리).

레'가 제주도에 들어가 제주화된 어휘, 웃드르(өндөр(öndür)[öndör]-위, 높은)의 '웃'은 위, '드르'는 들판을 지칭하는 제주방언 등의 어휘로 제주만의 고유 지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개연성 고찰은 제주어와 몽골어와의 여러 상관관계에 있어 좀 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 학술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제주어의 특징은 대륙과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독립적・보완적일 수 있었으며,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언어의 모방과 혼합이 오랜 기간 보존되어 현재까지 고어 형태로 남아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탐라지(1654)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으며, 『탐라순력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증보탐라지』 등의 문헌이 있다. 제주어는 특히 제주, 대정, 정의 등 세 곳으로 나뉘어 있고, 세 곳의 지방어는 다시 세분되어 부락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바위[43]의 경우, 북부어는 '엉덕', 남부어는 '바우', 평지에 있는 바위는 'ㅁ 들' 또는 '바윗그루', 반석은 '빌레' 등으로 부른다. 특히 제주어는 외부, 즉 제주와 가까운 주변 대륙인 중국과 한국의 남부지역, 일본, 중세 원(元)과의 역사적 교류관계로 들어온 외래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명은 지역의 형상이나 특징을 동물(개머리동산)이나 사물(바지왓)에 비유하거나, 역사적 사건이나 설화(건지동산)의 중심이 되는 주제나 인명(人名)이 사용되었다. 또한 땅의 주인 이름(고천이 올래) 또는 지역 사람의 별명(고시랭이)이나 신체적 특징을 표현한 어휘, 한국어와 비슷하게 발음 나는 대로 붙여진 어휘(담튼밭, 망동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독립적이면서 새로운 언어에 대한 모방과 보존이 지리적 특성과 섬사람들의 삶의 애환 속에 내재되어 지금까지도 제주만의 언어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몽골비사에서도 지명의 특징적 경향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지역의 모습이나 형상을 따라 지명을 붙이는 방식이다. 둘째는 그 지역의 특산물에 따른 방식이며, 셋째는 인물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람의 이름을 지명에 붙이는 방식[44] 등이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몽골의 언어학적 개연

43) 석주명,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1947, 158쪽.
44) 김기선, 『한・몽 문화교류사』, 민속원, 2008, 94~95쪽(참고).

성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래어에 대한 개연성 연구는 한자음표기에 따른 의미이해와 어원의 변형, 지역과 지형의 특징 등을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연구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주지명 연구에서 제시되는 몽골어와의 개연성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연구과제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영봉, 「‘제주어 표기법’에 대하여」, 『영주어문』 제15집, 영주어문학회, 2010, 5~31쪽.

김광협,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태광문화사, 1984.

김기선, 『한・몽 문화교류사』, 민속원, 2008.

G.J 람스테트, 『알타이어형태론개설』, 민음사, 1985.

문덕찬, 『제주 지명어의 형태・음운론적 연구』, 제주대학교(박사논문), 2005.

문순덕, 「제주 구비문학에 나타난 제주방언의 문법 연구」, 『영주어문』 제21집, 영주어문학회, 2011, 173~192쪽.

민중서림 편집국, 『옛센스 국어사전』, 제5판, 민중서림, 2003.

박용후, 『濟州方言硏究(資料篇)』, 高大民族文化硏究所 出版部, 1988쪽.

박용후, 「제주도 고대사와 언어」, 『제주도사연구(제2집)』, 제주도사연구회, 1992, 245~260쪽.

박용후, 『우리말 옛 땅이름 연구』, 제주문화사, 1992.

석주명,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1947.

심여택, 「濟州道 地名의 構成: 中文面의 地名을 中心으로」, 『국문학보』 7, 제주대국어국문학과, 1975, 52~63쪽.

오창명, 「濟州道 마을[洞里]과 山岳 이름의 종합적 연구」, 『탐라문화』 제1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30, 88쪽.

제주문화예술재단, 『개정증보 제주어 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592쪽.

제주문화원, 『濟州市 옛 地名』, 제주시, 1996: 67, 333, 335쪽.

현평효・강영봉 편저,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 도서출판 각, 2014, 232쪽

2. 동양권문헌

Ким ки сон,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ы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Кур ё улсын түүхий н х

олбогдол”, 몽골국립대학교(박사논문), 1993: 95, 201, 204~208, 213, 215~216쪽.

Самбуудорж.О,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ий н дуудлагын толь(몽골어 발음 사전)』(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жл 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хэл зохиолын хүрээлэн-Монгол хэл соёл 2), “МОНСУДАР”хэвлэлий н газар, 2014.

Осорнамжимын Сүхбаатар, 『Монгол хэлний харь үгий н толь(몽골 외래어 사전)』(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хэл зохиолын хүрээлэн-Монгол хэл соёл 15), “МОНСУДАР” хэвлэлий н газар, 2014.

Эрдэнчимэг.Г 외 3인, 『한몽사전』,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 2010.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사전편찬위원회, 『몽한사전』, 울란바타르대학교, 2010.

Цэвэл.Я,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 лбар толь(몽골어 요약 해설사전)』, Мөнхий н үсэг ххк, 2013: 18, 24, 91, 161, 198, 280, 485, 497, 609쪽.

<Abstract>

A Consideration on the Name of Place in Jeju Island

-Focus on the Probability with the Middle Age Mongolian Language-

Lim, Do-hee

Language and culture have existed by changing and transforming upon the historical relationships and mutual interchange among the people. Due to this reason, to study on the vestige of language is quite worthy in terms of linguistic perspective to figure out the significance of linguistic remnants caused by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Mongolian and Jeju Island, the largest island in Korea. In the present, I have contemplated various logics regarding the name of places in Jeju-do. In general, many places in Jeju have a lot of vocabulary that represents characteristic and unique meaning of the region, and the inflow of language has been well localized and settled due to the invasion of foreign power and interchange. Therefore, the names of Oreum (Volcanic cone in Jeju: Gasi, Deode, Bari, Ajin, Al) and the other places (Melke, Morok-bat, Musunae, Beoraeng-i, Wootdeur) in Jeju were studied in terms of its formation, phoneme, and meanings, in perspective of its relationship with Mongolian language in the Middle Age and, I tried to find out that the name of places in Jeju are truly uniqu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nd probability shall be considered the meanings of the Chinese words, transformation of the original words, and the geographic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consideration shall be considered as the academic research to make clear between Jeju language and Middle Age Mongolian language in different correlations. Thus, a study on the linguistics probability is a major task to solve through consistent interchange and research between the linguists of both countries.

• Key Words: Gasi Oreum, Deode Oreum, Melke, Morok-bat, Musunae, Bari Oreum, Beoraeng-i, Ajin Oreum, Al Oreum, Wootdeur

주　　소: (10104) 경기도 김포시 감정로 64. 115동 405호
(감정동 푸른마을)
전자우편: limdh66@hanmail.net

논문 투고일: 2016. 5. 25.
심사 완료일: 2016. 6. 3.
게재 확정일: 2016. 6. 18.